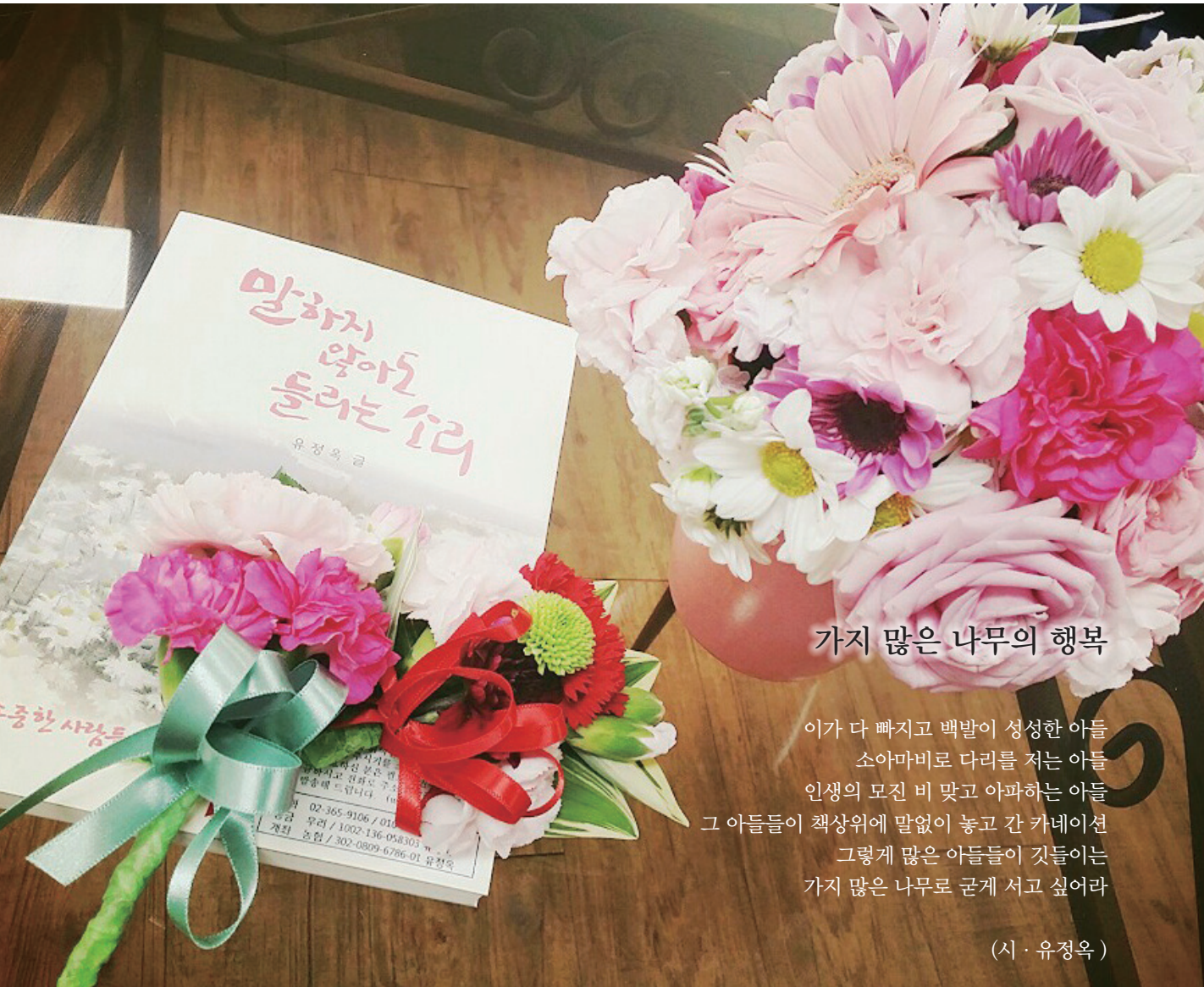


2015년 5월호(제 125호)

# 소중한사람들



## 가지 많은 나무의 행복

이가 다 빠지고 백발이 성성한 아들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아들  
인생의 모진 비 맞고 아파하는 아들  
그 아들들이 책상위에 말없이 놓고 간 카네이션  
그렇게 많은 아들들이 깃들이는  
가지 많은 나무로 굳게 서고 싶어라

(시 · 유정옥)

www.ppp.or.kr 발행인 유정옥

주소 100-859 서울 중구 중림동 274-3 · 전화 02-365-9106 · 팩스 02-365-9104

2015년 5월호(제 125호)

# 소중한 사람들

## 가지 많은 나무의 행복

이가 다 빠지고 백발이 성성한 아들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아들  
인생의 모진 비 맞고 아파하는 아들  
그 아들이 책상위에 말없이 놓고 간 카네이션  
    그렇게 많은 아들이 갖들이는  
가지 많은 나무로 굳게 서고 싶어라

(시·유정옥)

www.ppp.or.kr 발행인 유정옥

주소 100-859 서울 중구 중림동 274-3 · 전화 02-365-9106 · 팩스 02-365-9104

2015년 5월호(제 125호)

# 소중한 사람들



## 가지 많은 나무의 행복

이가 다 빠지고 백발이 성성한 아들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아들  
인생의 모진 비 맞고 아파하는 아들  
그 아들들이 책상위에 말없이 놓고 간 카네이션  
그렇게 많은 아들들이 깃들이는  
가지 많은 나무로 굳게 서고 싶어라

(시·유정옥)

[www.ppp.or.kr](http://www.ppp.or.kr) 발행인 유정옥

주소 100-859 서울 중구 중림동 274-3 · 전화 02-365-9106 · 팩스 02-365-9104

# 그 두려움이 변화하여 찬양이 되었고

포크레인의 둔탁한 소리가 경쾌하게 들리고 내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흐른다.

주님도 이 날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오신 것일까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결코 내 등을 떠밀지 않으시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움직일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다.

주님은 수없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시작하라.”고

그러나 나는 두려웠다.

호스피스 무료 병원은 서울역 노숙인들을 섬기는 일과는 비교도 안되는 비용과 인력,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 가득히 두려움이 밀려 왔다.

2015년 3월 3일 기공 예배 후에 토목공사가 시작되었다.

주변의 방해가 너무 심했다. 중장비 차가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자동차로 가로 막기도 하고 병원 건립하는 것을 이유 없이 반대하는 어떤 분은 땅바닥에 드러눕기 까지 했다.

우리가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지 않지 않고 기다리고 한 발자국 기다리고 또 한 발자국...

그렇게 가는 동안 방해 하던 분들이 이제는 오히려 우리를 돕는 분들이 된 것이다.

이제는 그 나무가 어디 있었지 하며 찾아야 할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공사 현장에서 나는 한없이 울었다. 가슴 깊이 감사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격려해주며 도와주며 기도해 주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과 늘 내 곁을 지켜주고 계신 주님께...

병원 현장에서 내려오자마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중에서 일부를 후원하고 싶다고...

그 전화는 나에게 아직 남아 있는 두려움의 작은 알갱이 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씻겨 내리는 맑은 샘물이었다.

이런 마음과 사랑들이 모여서 머지않은 시간에 소중한사람들 호스피스 무료 병원이 세워질 것이다. 그 곳에서 삶의 마지막을 걷는 환우들이 주님을 만나는 곳 - 죽음을 기다리는 호스피스 병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출산의 병원이 될 것을 굳게 믿는다.



2015년 5월11일 호스피스 무료병원 건립 현장에서 글 유정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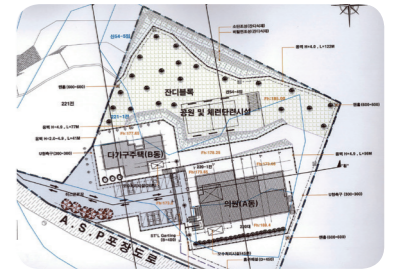
청평 무료 병원 건립에 천사회원이 되어 주세요

## 말기 암환자들의 안식과 영혼 구원을 위한 마지막 쉼터(호스피스)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호스피스 시설이 부족하여 대기하다가 정작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임종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되어 갈 곳 없고 간호해 줄 가족도 없는 극빈한 말기 암 환자분들을 제때에 돕기 위해 호스피스 무료병원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건축허가를 2014년 12월 22일 드디어 받았습니다. 청정지역이다 보니 건축허가를 어렵게 받았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병원 건축은 3월 3일 오후3시 기공예배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이 속히 세워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가없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천사후원(1인 1계좌 100만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병원 앞면 벽돌에 천사(1004)명의 소중한 이름이 새겨져 아름다운 연합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2015년 4월에는 12분이 가입하셨습니다.



▲청평 호스피스 병원 설계도

### 나눔 기부천사

2015년 4월 천사 회원이 되신 분

- 550. 심스자나박 551. 새안산제일교회 552. 스마트폰입금자 553. 박toda한나(김영자)
- 554. 박toda노아(김영자) 555. 김옥환 556. 조동환 557. 박성현 558. 김미화 559. 최영희
- 560. 오재원 561. 김주환 562. 이현순

- |          |              |          |          |           |          |          |          |           |          |                   |          |          |          |          |
|----------|--------------|----------|----------|-----------|----------|----------|----------|-----------|----------|-------------------|----------|----------|----------|----------|
| 1. 이원욱   | 2. 김옥겸       | 3. 이방훈   | 4. 박혜정   | 5. 이선아    | 6. 이민규   | 7. 이진재   | 8. 황호영   | 9. 이충희    | 10. 김진작  | 11. 박승우           | 12. 이철   | 13. 장영택  | 14. 단혜봉  | 15. 고명숙  |
| 16. 최관호  | 17. 황의열      | 18. 박미선  | 19. 김영숙  | 20. 정미진   | 21. 이관규  | 22. 이명규  | 23. 이미옥  | 24. 송준홍   | 25. 조경숙  | 26. 이재영           | 27. 이영선  | 28. 김정숙  | 29. 안상국  | 30. 안은숙  |
| 31. 황용남  | 32. 최신애      | 33. 황예진  | 34. 황예솔  | 35. 김인숙   | 36. 신동훈  | 37. 송미희  | 38. 조연희  | 39. 박재원   | 40. 백재원  | 41. 백승원           | 42. 이미몽  | 43. 사재신  | 44. 박리브가 | 45. 박진경  |
| 46. 김부녀  | 47. 김경자      | 48. 황옥남  | 49. 이송희  | 50. 김인숙   | 51. 김순하  | 52. 심로만  | 53. 심재록  | 54. 심혜진   | 55. 예디실  | 56. 줄리실           | 57. 심재니  | 58. 유예민  | 59. 문지혜  | 60. 김대원  |
| 61. 김경자  | 62. 김영미      | 63. 이동식  | 64. 맹의권  | 65. 김오철   | 66. 이금복  | 67. 이원영  | 68. 심형   | 69. 이상수   | 70. 박해숙  | 71. 이기원           | 72. 이상준  | 73. 현민숙  | 74. 한귀원  | 75. 한종택  |
| 76. 김보세  | 77. 이현미      | 78. 김미아  | 79. 장광옥  | 80. ( )   | 81. 김갑근  | 82. 김정녀  | 83. 박경주  | 84. 하나로교회 | 85. 김현희  | 86. 서상원           | 87. 정수정  | 88. 서재호  | 89. 임재은  | 90. 김현숙  |
| 90. 임재원  | 91. 장득진      | 92. 이재선  | 93. 이주연  | 94. 노미령   | 95. 김대영  | 96. ( )  | 97. 권민진  | 98. 강애자   | 99. 정순철  | 100. 김효정          | 101. 최병환 | 102. 김성옥 | 103. 박정운 | 104. 안정옥 |
| 105. 윤희영 | 106. 이영태     | 107. 하운  | 108. 성현주 | 109. 이영미  | 110. 강혜정 | 111. 신무자 | 112. 김성훈 | 113. 이순아  | 114. 김상원 | 115. 예수사랑116. 장지호 | 117. 장성문 | 118. 강인숙 | 119. 최현숙 | 120. 유순자 |
| 121. 안혜정 | 122. 최형배     | 123. 황길임 | 124. 차인표 | 125. 신예라  | 126. 차예은 | 127. 차예은 | 128. 차예은 | 129. 이준자  | 130. 신길선 | 131. 채수용          | 132. 고미경 | 133. 채준병 | 134. 채단비 | 135. 서영숙 |
| 136. 이순철 | 137. 주영훈     | 138. 최효상 | 139. 고오남 | 140. 최유리  | 141. 이영순 | 142. 이문순 | 143. 이우영 | 144. 피영애  | 145. 김익수 | 146. 이광옥          | 147. 박순옥 | 148. 김재만 | 149. 홍재연 | 150. 김명분 |
| 151. 민경희 | 152. 최병식     | 153. 이선호 | 154. 윤유선 | 155. 이등주  | 156. 이우영 | 157. 김형락 | 158. 이말희 | 159. 김주영  | 160. 손삼영 | 161. 송인숙          | 162. 탁난영 | 163. 김인규 | 164. 탁용화 | 165. 김순혜 |
| 166. 탁지봉 | 167. 유영애     | 168. 오정현 | 169. 손광영 | 170. 이귀래  | 171. 김연숙 | 172. 이대경 | 173. 유준재 | 174. 이보영  | 175. 박성호 | 176. 박정호          | 177. 박재신 | 178. 조은수 | 179. 박순옥 | 180. 정선영 |
| 181. 최인애 | 182. 김난심     | 183. 백현진 | 184. 백인기 | 185. 안재우  | 186. 김재용 | 187. 김수신 | 188. 양상준 | 189. 송연숙  | 190. 임혜순 | 191. 신호실          | 192. 안소옥 | 193. 박영남 | 194. 정혜인 | 195. 이정자 |
| 196. 유부자 | 197. 컨테무스합창단 | 198. 김일홍 | 199. 신정희 | 200. 독고춘화 | 201. 허근  | 202. 김영숙 | 203. 김양용 | 204. 장경자  | 205. 위재원 | 206. 박은택          | 207. 박은진 | 208. 김은애 | 209. 김예은 | 210. 장원정 |
| 211. 이은혜 | 212. 이명숙     | 213. 채영광 | 214. 채민아 | 215. 방윤순  | 216. 무명  | 217. 한종식 | 218. 박홍준 | 219. 이희영  | 220. 박은택 | 221. 박은진          | 222. 조은애 | 223. 김연희 | 224. 박은진 | 225. 김연희 |
| 226. 조소영 | 227. 김영희     | 228. 임영환 | 229. 유정석 | 230. 소신희  | 231. 이선  | 232. 이선  | 233. 이선  | 234. 이선   | 235. 이선  | 236. 이선           | 237. 이선  | 238. 이선  | 239. 이선  | 240. 이선  |
| 241. 이선  | 242. 이선      | 243. 이선  | 244. 이선  | 245. 이선   | 246. 이선  | 247. 이선  | 248. 이선  | 249. 이선   | 250. 이선  | 251. 이선           | 252. 이선  | 253. 이선  | 254. 이선  | 255. 이선  |
| 256. 이선  | 257. 이선      | 258. 이선  | 259. 이선  | 260. 이선   | 261. 이선  | 262. 이선  | 263. 이선  | 264. 이선   | 265. 이선  | 266. 이선           | 267. 이선  | 268. 이선  | 269. 이선  | 270. 이선  |
| 271. 이선  | 272. 이선      | 273. 이선  | 274. 이선  | 275. 이선   | 276. 이선  | 277. 이선  | 278. 이선  | 279. 이선   | 280. 이선  | 281. 이선           | 282. 이선  | 283. 이선  | 284. 이선  | 285. 이선  |
| 286. 이선  | 287. 이선      | 288. 이선  | 289. 이선  | 290. 이선   | 291. 이선  | 292. 이선  | 293. 이선  | 294. 이선   | 295. 이선  | 296. 이선           | 297. 이선  | 298. 이선  | 299. 이선  | 300. 이선  |
| 301. 이선  | 302. 이선      | 303. 이선  | 304. 이선  | 305. 이선   | 306. 이선  | 307. 이선  | 308. 이선  | 309. 이선   | 310. 이선  | 311. 이선           | 312. 이선  | 313. 이선  | 314. 이선  | 315. 이선  |
| 316. 이선  | 317. 이선      | 318. 이선  | 319. 이선  | 320. 이선   | 321. 이선  | 322. 이선  | 323. 이선  | 324. 이선   | 325. 이선  | 326. 이선           | 327. 이선  | 328. 이선  | 329. 이선  | 330. 이선  |
| 331. 이선  | 332. 이선      | 333. 이선  | 334. 이선  | 335. 이선   | 336. 이선  | 337. 이선  | 338. 이선  | 339. 이선   | 340. 이선  | 341. 이선           | 342. 이선  | 343. 이선  | 344. 이선  | 345. 이선  |
| 346. 이선  | 347. 이선      | 348. 이선  | 349. 이선  | 350. 이선   | 351. 이선  | 352. 이선  | 353. 이선  | 354. 이선   | 355. 이선  | 356. 이선           | 357. 이선  | 358. 이선  | 359. 이선  | 360. 이선  |
| 361. 이선  | 362. 이선      | 363. 이선  | 364. 이선  | 365. 이선   | 366. 이선  | 367. 이선  | 368. 이선  | 369. 이선   | 370. 이선  | 371. 이선           | 372. 이선  | 373. 이선  | 374. 이선  | 375. 이선  |
| 376. 이선  | 377. 이선      | 378. 이선  | 379. 이선  | 380. 이선   | 381. 이선  | 382. 이선  | 383. 이선  | 384. 이선   | 385. 이선  | 386. 이선           | 387. 이선  | 388. 이선  | 389. 이선  | 390. 이선  |
| 391. 이선  | 392. 이선      | 393. 이선  | 394. 이선  | 395. 이선   | 396. 이선  | 397. 이선  | 398. 이선  | 399. 이선   | 400. 이선  | 401. 이선           | 402. 이선  | 403. 이선  | 404. 이선  | 405. 이선  |
| 406. 이선  | 407. 이선      | 408. 이선  | 409. 이선  | 410. 이선   | 411. 이선  | 412. 이선  | 413. 이선  | 414. 이선   | 415. 이선  | 416. 이선           | 417. 이선  | 418. 이선  | 419. 이선  | 420. 이선  |
| 421. 이선  | 422. 이선      | 423. 이선  | 424. 이선  | 425. 이선   | 426. 이선  | 427. 이선  | 428. 이선  | 429. 이선   | 430. 이선  | 431. 이선           | 432. 이선  | 433. 이선  | 434. 이선  | 435. 이선  |
| 436. 이선  | 437. 이선      | 438. 이선  | 439. 이선  | 440. 이선   | 441. 이선  | 442. 이선  | 443. 이선  | 444. 이선   | 445. 이선  | 446. 이선           | 447. 이선  | 448. 이선  | 449. 이선  | 450. 이선  |
| 451. 이선  | 452. 이선      | 453. 이선  | 454. 이선  | 455. 이선   | 456. 이선  | 457. 이선  | 458. 이선  | 459. 이선   | 460. 이선  | 461. 이선           | 462. 이선  | 463. 이선  | 464. 이선  | 465. 이선  |
| 466. 이선  | 467. 이선      | 468. 이선  | 469. 이선  | 470. 이선   | 471. 이선  | 472. 이선  | 473. 이선  | 474. 이선   | 475. 이선  | 476. 이선           | 477. 이선  | 478. 이선  | 479. 이선  | 480. 이선  |
| 481. 이선  | 482. 이선      | 483. 이선  | 484. 이선  | 485. 이선   | 486. 이선  | 487. 이선  | 488. 이선  | 489. 이선   | 490. 이선  | 491. 이선           | 492. 이선  | 493. 이선  | 494. 이선  | 495. 이선  |
| 496. 이선  | 497. 이선      | 498. 이선  | 499. 이선  | 500. 이선   | 501. 이선  | 502. 이선  | 503. 이선  | 504. 이선   | 505. 이선  | 506. 이선           | 507. 이선  | 508. 이선  | 509. 이선  | 510. 이선  |
| 511. 이선  | 512. 이선      | 513. 이선  | 514. 이선  | 515. 이선   | 516. 이선  | 517. 이선  | 518. 이선  | 519. 이선   | 520. 이선  | 521. 이선           | 522. 이선  | 523. 이선  | 524. 이선  | 525. 이선  |
| 526. 이선  | 527. 이선      | 528. 이선  | 529. 이선  | 530. 이선   | 531. 이선  | 532. 이선  | 533. 이선  | 534. 이선   | 535. 이선  | 536. 이선           | 537. 이선  | 538. 이선  | 539. 이선  | 540. 이선  |
| 541. 이선  | 542. 이선      | 543. 이선  | 544. 이선  | 545. 이선   | 546. 이선  | 547. 이선  | 548. 이선  | 549. 이선   | 550. 이선  | 551. 이선           | 552. 이선  | 553. 이선  | 554. 이선  | 555. 이선  |
| 556. 이선  | 557. 이선      | 558. 이선  | 559. 이선  | 560. 이선   | 561. 이선  | 562. 이선  | 563. 이선  | 564. 이선   | 565. 이선  | 566. 이선           | 567. 이선  | 568. 이선  | 569. 이선  | 570. 이선  |

\* 가족 단위로 후원해주신 천사회원님들을 일련번호로 묶어드리기 위해 회원 번호를 일부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평 무료 요양소를 위한 천사회원(1구좌 100만 원, 분납 가능)과 씨앗헌금(자유 기부)에 참여하려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고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전화 010-2210-9106 | 송금계좌 국민 815601-04-128600 소중한사람들**

후원 헌금

호스피스 무료병원



2015년 4월

고지영	5,000
김갑균	30,000
김대학, 권부림	20,000
김미영	30,000
김순하	553,000
맹의균	50,000
박란희	5,000
유재미	10,000
윤병중	10,000
이대제	100,000
이성일, 박선인, 이황희	2,000,000
이희숙	5,000
조미숙	1,000,000
차승현	10,000
차인하	20,000
최영희	10,000
	3,858,000

#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의 한 과정

목회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자신의 시누이라며 여자 한 분을 교회로 데리고 왔다. 그는 교회에서 기거하고 싶다고 했다. 처음 말할 때는 간단한 위 수술을 해서 신앙심을 갖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동기가 어찌되었든지 병든 영혼이나 몸이 교회에 깃들기를 원한다면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급히 그가 거처할 병상을 만들었다. 병이 아니면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올 이유가 없다고 그의 눈과 행동이 말하고 있었다.

이제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병상에 누우며 교회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 남편은 삼성전자의 간부이고 자신은 강남 초등학교의 교사였다는 것도 말했다. 먹은 것이 자주 체해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일 뿐 아니라 암세포가 임파와 간까지 전이된 상태라는 것이었다. 위 절제 수술은 물론 했지만 병원에서 한 달을 더 살지 못한다고 사형선고를 받았단다.

자신이 죽음을 너무 두려워 하니까 죽음이라도 평안히 맞으라고 그의 울케가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온 것이었다.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둔 암 환자라고 하면 교회에서 거절할까봐 병증을 속였다는 것이었다. 나는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거절하지 않아요.” 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그는 물 한모금도 넘기지 못하는 정도였다.

이제 남부럽지 않게 살 만한 모든 것을 갖춘 37세의 여인, 그는 그동안 모아놓은 것들을 다 두고 가기에 너무 아까운 것이 많아 억울해하고 있었다. 자신이 병을 얻은 것도 남편 때문이라고 원망하며 죽음이 두려워 파르르 떨고 있었다.

성경 읊기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시면 입에 생긴 침조차 삼킬 수 없다는 말씀이 있다. 언제 어떻게 생기지도 모르게 생기고 윤회유처럼 삼켜지는 침에 대한 고마움을 수십억의 생명 중에 몇 명이나 느끼고 있을까?

나는 생수를 앞에 놓고 그와 함께 기도하였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으로 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음식인 물을 삼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는 그날 300cc의 물을 마실 수 있었다. 그 이튿날엔 강판에 갈은 오이즙(2개 분량)을 먹었다. 하루, 이틀..... 시간이 거듭될수록 그의 식단은 시금치국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두 달이 되니 그의 머리카락이 까맣게 나기 시작했다. 목욕도 갈 수 있게 되었고, 봄에는 복직을 하겠다고 준비 중이었다.

그러던 중 그는 가발을 쓰고 병원에 다녀오더니 짐을 챙겨서 집으로 가겠다고 했

다. 내가 몸을 더 추스르려면 한 달 정도 더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했다. 그랬더니 그동안 내가 준 음식이 몸에 다 안 좋은 것들이었다고 짜증을 내는 것이었다. 의학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에게 몸을 맡긴 것이 두 달이면 된다는 것이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는 떠났다. 나는 단 한 번에 병에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다. 다만 질병이 있으면 치료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셨을 것이라는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을 뿐이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병든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에 맞는 정성을 다할 뿐이다.

그가 간 자리를 망연히 쳐다보고 있는 나에게 “그 정성을 돌에 쏟았으면 벌써 돌 위에 짝이 돋았을 거예요. 저렇게 가면 더 좋지 될 그래요. 그 고생 하면 돈이 나와요? 칭찬이 나와요? 오늘부터 잠이나 폭주하세요.” 라고 나를 도와 더 정성을 쏟으며 밤마다 기도하고 그를 간호해 주던 성도님이 부아가 나서 말했다. 그분은 남편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후 암으로 앓는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 돌보아 주고 있었다.

그가 떠난 지 두 달 후 강남 성모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그의 임종직전의 부름이었다. 분홍한복으로 갈아입은 그는 의식이 없는 것 같았다. 남편은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아 병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사랑을 자신이 버렸다면 뼈아픈 후회를 했다고 우리에게 돌아오고 싶어서 집 주변의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마침내 주님의 사랑을 만났다는 것이다. 남편도 같이 교회에 나간다니 두 달 간호 대가로는 최고가 아니겠는가?

그는 우리가 불어주는 찬송 소리를 들으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접을 받았다. 그의 남편은 아내가 소중히 간직했던 종이 한 장을 나에게 주었다. 그것은 그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온 날 내가 그에게 써 준 글이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의 과정입니다.”

그토록 죽음 앞에 파르르 떨던 그의 입술은 살며시 미소를 머금듯하여 영원한 삶을 소유한 평안을 나에게 소리 없이 전하고 있었다.

-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중에서 -  
글 유정옥

## 도서출판 소중한사람들

### 노숙인과 말기 암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사람들의 책들

소중한사람들의 책 수익금은 서울역 노숙인 아침 무료급식, 말기 암환자 영양소 건립, 그리고 선교비로 쓰여집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추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 소중한사람들 새 책 출간 소식 <달팽이네 6공주>

저는 31살~41살까지 11년간 6명의 딸을 낳은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42살에 유방암 2기 수술을 받은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암 수술한지 만 5년이 되어 병원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따스한 봄 햇살처럼 다시금 웃음과 행복이 찾아 왔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했던 사람도, 글쓰기를 즐겨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저의 짧은 삶을 부끄럽지만 이곳에 옮깁니다. 제가 모르는 어느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 깊이 존경하는 유정옥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스런 여섯 공주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저의 글을 말기 암 환우들의 마지막 쉼터인 소중한사람들 무료병원에 기증합니다. 책 한권을 구입하실 때 마다 책의 모든 수입은 이 소중한 일에 쓰여 질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은 청평에 무료병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정과 사회에 버림받고 소외되어 갈 곳 없고 간호해 줄 가족도 없는 극빈한 말기 암 환우를 무료로 돕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그분들의 영혼구원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 2015년 정순명



달팽이네 6공주

정순명 글  
정순명 그림



소중한사람들

달팽이네 6공주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유정옥 · 정가 10,000원)

굽이마다 눈물을 왈칵 쏟게 하는 뜨거운 감동의 이야기. 78쇄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유정옥의 대표작!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유정옥 · 정가 12,000원)

책소개글 내용 주세요!

❖ 전국 기독교서점, 일반서점, 인터넷서점, 직접 주문(02-365-9106)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 하와이에서 온 편지



2013년 크리스마스에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제자훈련(DTS)에 참여하기 위해 곧바로 하와이 열방대학(YWAM/University of the Nations)으로 왔습니다. 3개월간, 성경적 세계관, 각 사회 영역에서의 소명 등을 주제로 전 세계에서 오시는 선교사들의 강의를 들었고, 하와이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강의 기간 후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자 각 팀별로 파송되었고, 저희 부부가 속한 팀은 멕시코와 니카라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누는 사역을 했습니다. 매주 성매매 여성들이 늘어선 거리로 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동네 청년 노숙인들과는 함께 축구 등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노력했습니다. 니카라과에서는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한 난민촌에 일구신 유치원, 초등학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현지 아이들에게 영어/컴퓨터/찬양을 가르쳤고, 식수를 배달하거나 지붕을 고쳐주는 일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 세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니카라과에서 사역을 하던 중, 은주는 미국 유학을 미루고 성경을 먼저 깊이 공부하라는 마음을 받았고, 저는 목상시간에 요한복음 15장7절 말씀을 받고 앞으로 무엇을 하든 성경말씀을 알아야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께 열방대학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성경공부학교를 (School of Biblical Studies)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프로그램 등록금과 체제비용이 부족했지만,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2014년 6월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름 동안 은주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저에게도 예상치 못했던 재정을 허락하시면서 프로그램 기간 동안 필요한 금액을 꼭 맞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작년 9월, 다시 하와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성경학교는 9개월 동안 66권의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공부하되, 각각의 책이 쓰여졌던 시대의 정치/문화적 배경을 먼저 이해하여 그 시대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공부하는 코스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바울의 서신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성경을 각 책마다 평균 약 5번 정도 읽고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12시간 이상 공부를 하다보니, 한국의 입시제도를 버렸던 저희도 기운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한 권 한 권을 공부할 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 뚜렷하게 느끼고, 이를 통해 믿음이 성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올 7월 하와이에서 공부를 마치면, 8월에는 은주가 다닐 로스쿨이 있는 미국 보스턴으로 갑니다. 저의 다음 발걸음이 아직 확실히 않고, 보스턴에서 필요한 재정 또한 어떻게 채워주실 지 기대 반 걱정 반이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문을 여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 믿음의 여정에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5년 5월 9일 하와이 코나에서  
민윤홍, 이은주 드림.

## 소중한사람들 교회 매일 오전 11시 예배와 점심 나눔



노숙인 들이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주신 노숙인 전용 교회인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이 함께 점심을 나눈다. 매일 300명 정도의 인원이 식사에 참여하고 있다.

노숙인 들의 예배와 점심식사를 위한 교회, 기관, 단체들의 봉사 방문이 계속되었다.

4월에는 2일과 16일 온누리 교회, 5일 아현감리교회에서 조정열 담임 목사님과 성경 공부반 성도님들 30여명이 봉사하였다. 8일 서문밖 교회, 11일 IBK투자증권, 13일과 20일 안양감리교회, 14일과 28일 조이어스교회, 18일 통일봉사단, 21일 성남제일교회, 22일 새로운 교회, 27일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봉사하였다. 문차미, 박차련, 김현주, 현미경, 전종우 그 외에 많은 봉사자들의 손길이 노숙인 들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고 있다.

매일 진실하고 뜨겁게 예배드리는 노숙인 들을 보며 오히려 봉사하러 온 봉사자 들이 더 은혜를 받는다고 입을 모은다.



소중한사람들 남성 쉼터에 입소한 40여명의 생활인 전원은 노숙의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일어서서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 일반 직장 취업, 자활 근로, 공공 근로 등을 통해 일을 하고 있다. 생활인 대부분이 급료에서 저축을 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소중한사람들 센터에서는 생활인들과의 1:1 상담, 무료 진료 지원, 취업 지도 및 일자리 알선, 신용회복 지원, 웃음치료사 이범주 선생님과 함께하는 웃음치료, 그리고 매일 낮 예배와 저녁 Q.T.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생활인들을 돕고 있다.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입소자 개인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서로를 가족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이 더 건강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대일 인격적으로 만나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가치를 찾게 해 준다.



소중한사람들 여성쉼터(일시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여성 노숙인들은 타 생활시설로의 전원 지원, 응급구호, 건강검진 및 진료의뢰, 샤워, 세탁, 식사 및 숙박 등의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재활이 필요한 분들은 신경정신과 치료를 통해 점차 회복되고 있다. 또한, 심리 안정 및 회복을 위한 미술치료와 상담, 신체 건강을 위한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취업재활 희망자에게 일자리 알선과 직업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일시보호시설에서는 알콜 중독, 정신질환,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거리에 나온 여성 노숙인들을 밤낮없이 돌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때로는 거칠거나 위험한 상황을 마주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소중한사람들 여성쉼터 직원들은 가장 어려운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열심히 땀흘리고 있다.



# 소중한사람들 해외이주민센터

소중한사람들 해외 이주민센터가 5월에 구로에서 중림동 센터근처로 이전합니다. 소중한사람들은 중림동에 해외이주민센터를 마련하고 이처럼 어려움에 빠진 중국 동포 등 해외 이주민들에게 무료급식과 거처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은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온 분들 중에 일자리를 잃거나 건강 문제를 가진 분들, 그리고 갈 곳도 없이 끼니를 굶는 분들을 보살피기 위해 마련된 해외 이주민 처소이다. 입소하여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식사와 생활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이주민센터에는 몸이 건강한 분들은 들어오기 어렵다.



몸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우선으로 받고 있다. 20여명이 머물 수 있는 이곳에는 현재 15명의 중국동포가 입소되어 있다.

소중한사람들은 이곳에서 동포들의 고충상담과 정착교육,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 소중한동포교회 주일예배와 수요기도회

소중한동포교회에서는 주일 오전 9시 30분 새신자 성경공부와 11시 주일예배를 드린다. 수요일에는 저녁 7시 수요기도회로 모인다. 센터에서 현재 생활하는 해외 이주민들은 매일 오전 9시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예배 인도와 성경공부는 김재웅 장로님이 맡고 있다.

## 이주노동자 조선족들과 한족 상담

한국의 낯선 땅에 와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안고 한국의 낯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들을 잘 상담해 주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주소 :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 35길 47-17  
전화 : 02-859-9106



## 상담·치유·봉사

###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8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

주님이 병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8년 동안 한결같이 노숙인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을 기다리는 노숙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아픈 환부를 보이며 치료를 받는다. 외상이 심한 환자는 이창우 원장님이 즉석에서 수술까지 해 주신다.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12시부터 진료가 있다.



## 이발·미용 봉사



매월 셋째 주 월요일마다 이미지 목사님과 김은희 권사님, 서경필 집사님이 소중한사람들 센터에서 노숙인들에게 이발을 해준다. 여성실터에서는 김화연 원장님이 첫째 주 주일마다 여성 노숙인들에게 커트와 퍼머를 해준다.

오랫동안 머리를 감지 않아 냄새나고 영킨 머리를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고 사랑의 미소로 맞이한다.

봉사자들의 하얀 손길이 스치고 나면 남녀 노숙인들은 이내 말끔한 신사, 숙녀로 변신된다.

## 의류, 신발, 생필품 나눔

- 의 류 - 정덕규장로, 조이어스교회
- 식 품 - 푸드뱅크, (주) JFNB, 목3동 롯데마트, 무명성남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은누리교회, 조이어스교회, 통일봉사단 권혜선

보내준 물건들을 노숙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중보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기도로 돕기 위해 모이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539회)이 계속되고 있다. 소중한 사람들 사역의 종합적 기도 제목을 기도한 후 참석자 개인의 중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한다. 중보기도 모임은 소중한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하기를 바란다.

### 중보기도 제목

#### 1. 소중한 사람들 사역

- 1)남성 쉼터 생활인들이 예수 영접, 건강, 직장,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 2)여성 쉼터 생활인들이 예수 영접, 육체/정신적 건강, 직장, 가정 회복하도록
- 3)소중한사람들 교회 365일 예배와 점심 나눔
- 4)진료, 상담, 샤워,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자
- 5)타국인을 섬기는 소중한사람들 이주민 센터 사역을 위해
- 6)청평 말기 암환자 무료 병원 건립

#### 2. 소중한사람들 해외사역

고아 1:1후원 양육과 무료 급식-미안마, 중국, 멕시코, 북한, 아이티

#### 3. 아이티 사역

- 1)교육 사역 2)고아 회관 운영 3)싱글맘 사역 4)예수마을 건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고아원, 무료급식소, 무료 진료소, 생필품보급소, 직업훈련소, 간호대학, 선교센터)
- 5)형무소 사역 6)무료진료소 운영 7)텐트촌 : 태양열 손전등 공급, 구제, 교육, 의료 8)태양열 발전소 건립

#### 4. 치유 - 신형진, 최유운, 송정숙, 구영애, 김건작, 백정은, 박미나, 이기정, 김선미, 김수경, 황지우, 박교회, 장원정, 김예건, 김민석, 김현술, 김보라, 이 설, 이 산, 박현규, 조기원, 이장우, 이수현, 이인경, 김도형

#### 5. 앤드류 구명을 위해



## 소중한사람들 해외 사역

### 아이티

#### 1. 교육 사역

- ① 방과후 학교 교육의 강화 : 방과후 학교 개념이었던 아이들의 교육(오후 2~4시)이 대안학교 개념(오후 1~5시)으로 정식적인 학교로 운영된다.
- ② 컴퓨터 교육 : 25대 규모로 컴퓨터 교실을 시작하였다. 이 사역은 현지 학교와 연계하여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며, 궁극적으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하는 미국, 아이티 현지의 선교사 부부와 봉사자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 ③ 영어 교육
- ④ 한국어 교육
- ⑤ 몬테소리 복음화 성경 교육



#### 2. 고아 회관 운영

찾아가던 고아원 사역이 비치 구입을 통해 고아들의 회관 운영으로 전환된다. 원아들을 고아회관으로 데려와 매 주마다 1고아원 1주일 복음화 캠프를 연다.

- ① 안경사역(눈이 나쁜 어린이에게 맞춤 안경 제작)
- ② 치유사역(병 치료를 받지 못한 어린이 집중 치료)
- ③ 자연과 하나되게 교육
- ④ 성경 교육과 예수 영접 및 결신
- ⑤ 옷, 신발, 학용품 공급
- ⑥ 고아들의 1:1 상담을 통한 꿈 키워주기



#### 3. 싱글맘 사역

싱글맘 한 사람에 집을 하나씩 지어주고 7가구 1그룹으로 운영한다. 그룹 취사장 교육장에서 전문 교육인을 두고 싱글맘 한 명이 매주 하루 교육 전문인과 함께 공동체 교육과 취사를 도우며 일한다. 다른 날은 농업, 수산업, 봉제, 로니 열매 발효 등으로 수입을 위한 일을 하여 자립하도록 돕는다. 싱글맘들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결혼교육, 어머니교육, 아버지교육을 통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훈련을 시키게 된다.



#### 4. 형무소 사역

소중한사람들은 격주 정기방문 즉 매달 첫째, 셋째 수요일마다 아이티 포트프랑스 인근에 소재한 여성 형무소에 찾아가다. 형무소 방문은 매번 아이티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남성 형무소는 너무 험악하여 방문 자체가 불가하나 여성 형무소는 이제는 법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공식적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빵과 음료(한 번에 600달러 소요)를 나눠 주며 죄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한 번 방문 때마다 소용되는 비용 조달 문제 때문에 아직은 둘째, 넷째 주 정기 방문이 어렵다. 둘째, 넷째 주를 책임져 줄 후원자를 어서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5. 비상상비약 보급

아이티는 약이나 병원 같은 의료 환경이 거의 전무하여 약을 제때 먹지 못해 다리를 잘라야 하는 어린이도 있다. 구충제만 있어도 아이티 사람들의 보건 상태는 훨씬 좋아지게 된다. 후원자 분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비상약도 보급하고 있다



#### 6. 텐트촌 : 태양열 손전등 공급 및 구제 · 교육 · 의료

아이티의 천막촌은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때부터 피해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다. 전기 공급이 없는 이곳은 저녁 일몰 때부터 다음날 해 뜨는 시간까지 12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앞을 가눌 수 없는 암흑천지로 변한다. 그 어둠속에서 살인적인 모기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뿐 아니라 어린 소녀들이 무차별 강간을 당하는 무법지대가 되는 것이다. 13세, 15세의 어린 소녀들은 임신한 상태로 천막에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중한사람들은 텐트촌에 태양열 충전 손전등(미화 30달러, 한화 35,000원) 공급과 텐트촌 순회 구제와 교육, 의료사역을 계속한다. 아이티에 쏟아지는 태양열에 30분만 충전하면 200시간을 쓸 수 있는 양이 충전된다. 아이티 사람들의 가슴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의 암흑 천막촌에는 태양열 손전등 한 개를 보내어 삶의 빛을 주기를 소망한다.



우리은행 1005-902-662715  
소중한사람들

▶ 아이티 소중한사람들 센터 주소  
DELMA 75, PORT-AU-PRINCE, HAITI  
아이티 전화 : 509-3655-7153, 070-8632-6076

#### 미얀마

사랑하는 소중한사람들 동역자님께

#### 할렐루야.

늘 많은 기도와 사랑으로 미얀마 선교 사역을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아:1후원



▲무료급식

#### 부흥 성회

2014년을 보내며, 2015년을 맞이하며 한 주간 부흥 성회가 있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부흥 성회는 200여명의 선교부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 간의 사랑을 넘치도록 주고받는 감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 라후족 새해 잔치

지난 1월 17일 라후 새해 잔치가 있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한 해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선교의 첫 사랑이 인 라후족이 자체적으로 리더자들을 키우고, 전도와 교육에 힘쓰는 모습을 보니 힘이 납니다. 기독교인 라후족 지도자들이 각 분야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유치원 교사들의 위로회

종갈레이 교회, 짜웅공 교회, 흘라양따야 교회, 펴간 교회, 따야공 교회의 유치원이 1년 과정 중 10개월을 무사히 마치고, 교사 위로회를 가졌습니다.

#### 수능시험

고등학교 최종 과정이 수능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수능시험에 합격하면 대학 진학하게 되고,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선교부의 수험생들은 모두 28명이었습니다. 펴간 센터에서 8명, 재수생 및 선교부와 관계된 학생들이 20명입니다. 모두 수능 시험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며 치킨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초에 시험 결과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사람들 후원으로 고아 20명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늘 부족한 것이 많은 선교사이기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게,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교사역 감당하는 김 선교사. 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독 부탁드립니다.

“늘 평안하소서!”

미얀마에서 김동호, 조현정 드림

## 멕시코

2010년 3월 멕시코 엔시나 다에 인디오 원주민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천 학교 겸 고아원을 세워 교육을 시작하였다. 인디오 원주민들은 깎뽀라는 집단 농장에서 일을 하며 집단 거주를 하는데 15살 때부터 아이를 낳아 한 가정에 아이가 6~10명이 된다.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아이들은 매춘부나 마약 딜러로 살다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멕시코는 무엇보다 교육이 절실하다. 고아 1:1 후원자는 20명이며 이동준 선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후원자가 연결되지 못한 아이에게 어서 빨리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 중국

2009년 11월 중국 도문시 애심 복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고아들은 탈북자 아이들이거나 연변에 버려진 조선족 고아들이다. 고아 1:1 후원자는 20명이며 고아사역은 한철범 원장님이 선교는 최민 선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 북한

북한은 2008년부터 평성, 황주 고아원을 후원하고 있다. 초유와 분유, 콩, 옥수수, 감자, 밀가루, 의류, 의약품, 생필품, 밤나무 묘목 등을 보냈다. 가장 폐쇄된 그곳이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지원으로 보이지 않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 올 겨울은 지난해 북한의 봄 가뭄과 늦여름의 수해 등으로 곡물 생산량이 30% 줄어들어 더 많은 후원이 필요하다. 김\*\*선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 후원자님께 드리는 편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5월이 왔습니다.

11년째 하루도 쉬지 않고 노숙인들을 섬기며 저는 스스로에게 항상 묻습니다.

노숙인들의 영혼을 가슴에 안고 그들의 구원 때문에 내 가슴이 아파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저는 11년동안 한결같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한 영혼을 목표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따뜻할 수 있고 절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중한사람들을 지켜보며 후원하며

어려운 길 외로운 길을 함께 해 주시는 동역자님들이 계셔서 저희는 힘들지 않고 행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도움을 받은 노숙인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기쁨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과 보람을 동역자되신 후원자님들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4월에 호스피스 무료병원 천사회원으로 가입해주신 12명의 기부 천사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주님께 보내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조의금의 일부를 현금해주신 김순하님 주님의 위로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십일조를 보내주신 광민준 김은혜부부 아기를 잉태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국에서 매달 변함없이 십일조를 보내 주시는 김영진 손미나님 감사드립니다. 달팽이네 6공주 가정의 손진섭 정순명님, 김동원, 유광현, 이현미, 김호선, 서명규, 이경훈, 유부자, 박선인, 고송자, 박웅기, 박종기 님...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공급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개인으로 현금해주신 고연영, 김은희, 박혜수, 이영숙, 주영훈, 지윤희님께 감사드립니다.

동광프리즘, 아현감리교회, 청파감리교회, IBK투자증권, 아현교회, (사) 온누리 약국 복지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비롯한 기관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에 직접 선교현금을 후원하고 계신 손길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평 호스피스 무료병원 건립을 위해 후원해 주신 조미숙님 외 많은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미얀마 멕시코 중국 북한의 고아들에게 후원해 주고 계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자님들의 한결같은 사랑에 힘입어 험벗고 굶주린 어린 아이들이 사랑을 먹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CMS를 통하여 매달 알알이 후연해 주고 계신 후원자님들께 가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해 올수 있었던 것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하고 계신 후원자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심정을 저희 소중한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며 돕겠습니다.

후원자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섬기시는 교회위에 주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소중한사람들 유정옥 드림

## ●● 십일조 헌금

고송재(40,000)	곽민준, 김은혜(300,000)	곽민준, 김은혜(220,000)	김동원(450,000)	김영진(800,000)	김호선(130,000)
무명1(250,000)	박선인(60,000)	박웅기(50,000)	박종기(16,000)	서명규(70,000)	손진섭, 정순명(600,000)
유부재(60,000)	이경훈(60,000)	이현미(150,000)			유광현(200,000)

## ●● 개인후원 헌금

JY(50,000)	강건원(20,000)	고연영(1,000,000)	고은영(10,000)	김남현(100,000)	김덕재(50,000)	김동민(10,000)	김미선(30,000)
김미옥(10,000)	김성호(5,000)	김영관(100,000)	김영선(10,000)	김은희(200,000)	김정호(100,000)	김주현(100,000)	김태세(40,000)
김하영(50,000)	김혜경(130,000)	김호숙(10,000)	남상철(100,000)	박성현(100,000)	박세준(20,000)	박양자(5,000)	박영옥(10,000,000)
박정애(30,000)	박지화(60,000)	박혜수(1,000,000)	변경자(20,000)	변명숙(10,000)	선우정자(100,000)	설충근(50,000)	손왕목(100,000)
송계순(30,000)	오은경(10,000)	우창훈(40,000)	유정옥(10,000)	윤갑수(10,000)	이명우(30,000)	이성숙(30,000)	이슬기(10,000)
이영숙(1,000,000)	이원옥(100,000)	이유미(10,000)	이응수(100,000)	이춘재(10,000)	이현미(50,000)	임옥규(10,000)	임지영, 임규성(40,000)
임채원(10,000)	장광욱, 장자인(50,000)		장순복(30,000)	장지호(50,000)	조성준(20,000)	조호윤(40,000)	주영훈(500,000)
지윤희(1,000,000)	차문철(80,000)	최혜영(20,000)	태평교(50,000)	한경숙(10,000)	허은혜(100,000)		

## ●● 기관후원 헌금

(기감)새안산제일교회(100,000)	(기감)수색감리교회(100,000)	(기감)아현감리교회(1,000,000)	(기감)안양감리교회(200,000)
(기감)청파감리교회(200,000)	(기성)동덕성결교회(50,000)	(기성)상도성결교회(50,000)	(기성)식도성결교회(50,000)
(기성)아현성결교회(100,000)	(기성)장충단교회(10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300,000)	(예장)영동중앙교회(100,000)
(예장)우리하나교회(30,000)	IBK투자증권(300,000)	기독교대한감리교(100,000)	기독교대한성결교(200,000)
대한예수교장로회(100,000)	드림의 교회(100,000)	문일중학교(10,000)서문교회(50,000)	서문밖교회(50,000)
섬김에RKAT(30,000)	소중한사람들교회(387,500)	예담교회한나회(100,000)	아현교회(200,000)
(주)컨피테크(100,000)	택리교회(40,000)	한신말말회(100,000)	혜성교회(50,000)

## ●● 미안마고아후원 헌금

곽상미(40,000)	김경녀(40,000)	김부녀(40,000)	김재민(40,000)	김재민(40,000)	김재민(300,000)	김현석(40,000)
박지영(40,000)	박혜정(40,000)	베레카선교회(40,000)	이성재(40,000)	이성재(40,000)	이은주(40,000)	조갑동(40,000)
주영훈(40,000)	최신애(40,000)	최신애(40,000)				

## ●● 중국고아후원 헌금

고달원(40,000)	박선주(40,000)	조춘식(40,000)
-------------	-------------	-------------

## ●● 멕시코고아후원 헌금

김동만(40,000)	서명희(40,000)	유재미(40,000)	이성자(40,000)
-------------	-------------	-------------	-------------

## ●● 북한고아후원 헌금

김광훈(200,000)	김명호(40,000)	사랑의교회여제자반(50,000)	유재미(40,000)	이은경(30,000)
--------------	-------------	-------------------	-------------	-------------

## ●● 아이티고아후원 헌금

pacificJNJ(40,000)	갓피플웨딩(40,000)	갓피플웨딩(40,000)	강병춘(40,000)	강인순(40,000)	고순미(40,000)	기쁜우리교회(40,000)
기쁜우리교회(40,000)	김경희(40,000)	김대준(40,000)	김상진(40,000)	김옥례(40,000)	김옥례(40,000)	노윤정(40,000)
박선인(40,000)	박선주(40,000)	박애경(40,000)	박은혜(40,000)	박은혜(40,000)	박준영(40,000)	백정선(40,000)
손향(40,000)	송현주(40,000)	송현주(40,000)	안영종(40,000)	양성진(40,000)	엠에스더(40,000)	온누리약국(박종화)(40,000)
온누리약국(박종화)(40,000)	온누리약국(박종화)(40,000)		온누리약국(박종화)(40,000)	온누리약국(박종화)(40,000)		온누리약국(박종화)(40,000)
이수미(40,000)	이수미(40,000)	이재혁(40,000)	이찬의(40,000)	이하은(40,000)	이하임(40,000)	임하진(40,000)
조정숙(40,000)	한국외국어대학교기독교사상의해(40,000)			홍정희(40,000)	홍정희(40,000)	장요셉(40,000)

## ●● 아이티선교후원 헌금

곽혜란(100,000)	기쁜우리교회(300,000)	김경녀(20,000)	박종래, 최임선(20,000)	박혜진(5,000)	새산성교회(10,000)
송은혜(30,000)	이재성(50,000)	이준자(50,000)	정영주(30,000)	조경숙(100,000)	조경숙(100,000)
무명(15,000)	무명(40,000)			한인택(20,000)	한종석(300,000)

## ●● 해외아이티선교 헌금

1월	은혜와사랑교회(\$1,500)	이항구(\$80)	최관호(\$300)	최재림(\$500)
2월	은혜와사랑교회(\$1,500)	이항구(\$80)	최관호(\$300)	최재림(\$500)
3월	은혜와사랑교회(\$1,500)	이항구(\$80)	최관호(\$300)	최재림(\$500)
4월	은혜와사랑교회(\$1,500)	이항구(\$80)	최관호(\$300)	최재림(\$500)

## ●● 아이티 전등후원 헌금

박영미(35,000)
-------------

## ●● CMS후원 헌금

갓피플웨딩(50,000)	강도숙(10,000)	강래순(10,000)	강명미(10,000)	강성애(5,000)	강신욱(50,000)	강연신(10,000)	강연정(3,000)
강영철(40,000)	강영희(100,000)	강은순(10,000)	강인순(50,000)	강정임(10,000)	강현미(4,000)	고건화(10,000)	고남균(10,000)
고명숙(30,000)	고명희(1,000)	고영덕(10,000)	고윤숙(10,000)	곽경숙(1,000)	곽상미(10,000)	구복희(10,000)	구정녀(50,000)
구중해(5,000)	권명순(10,000)	권은정(30,000)	권혁천(10,000)	권희림(10,000)	김경진(10,000)	김광일(30,000)	김광찬(10,000)
김금녀(10,000)	김금복(10,000)	김기열(3,000)	김동만(50,000)	김명숙(10,000)	김명순(10,000)	김명자(100,000)	김명희(10,000)
김문숙(10,000)	김미숙(10,000)	김민주(5,000)	김베드로(10,000)	김보연(30,000)	김보연(5,000)	김보연(5,000)	김복한(10,000)
김부녀(30,000)	김선미(1,000)	김선미(20,000)	김선아(10,000)	김선영(20,000)	김선우(10,000)	김선희(10,000)	김성만(20,000)
김성봉(10,000)	김성호(10,000)	김세진(30,000)	김소라(10,000)	김소자(5,000)	김수경(10,000)	김수경(30,000)	김수영(20,000)
김숙미(10,000)	김순복(20,000)	김순하(10,000)	김소아(10,000)	김승현(2,000)	김승훈(30,000)	김신애(10,000)	김애임(50,000)
김애임(50,000)	김영미(50,000)	김영성(5,000)	김영성(5,000)	김영숙(10,000)	김영숙(5,000)	김영숙(10,000)	김영순(10,000)
김영신(35,000)	김영우(10,000)	김영인(50,000)	김영인(1,000)	김영진(10,000)	김영진(40,000)	김예은(1,000)	김예은(1,000)
김오례(10,000)	김옥경(20,000)	김원숙(5,000)	김유정(20,000)	김은경(10,000)	김은숙(10,000)	김은숙(10,000)	김은주(10,000)
김은희(5,000)	김의환(5,000)	김인숙(10,000)	김인영(10,000)	김재영(50,000)	김정기(20,000)	김정순(10,000)	김정원(10,000)
김종미(10,000)	김종복(10,000)	김종선(2,000)	김주애(20,000)	김준환(10,000)	김지선(2,000)	김진수(30,000)	김진아(5,000)
김진희(3,000)	김창영(10,000)	김태규(20,000)	김태완(30,000)	김태조(10,000)	김태훈(5,000)	김한나(5,000)	김해남(5,000)

# 4월 향기로운 예물 드리신 분들

2015년 4월 1일 ~ 4월 30일까지

김해남(5,000)	김향숙(10,000)	김향순(5,000)	김현미(20,000)	김현애(5,000)	김현정(5,000)	김현진(30,000)	김현희(10,000)
김형준(20,000)	김혜란(10,000)	김혜미(10,000)	김홍주(30,000)	김홍희(5,000)	김홍희(5,000)	김희석(5,000)	김희연(30,000)
나영미(20,000)	나주열(10,000)	노미령(30,000)	노유순(5,000)	노은희(10,000)	노정심(10,000)	노한준(30,000)	노황창(10,000)
노황창(10,000)	동광프리즘(주)(1,000,000)		류희정(10,000)	명주현(10,000)	문경자(5,000)	문현주(5,000)	박경근(10,000)
박경욱(10,000)	박경희(10,000)	박관택(30,000)	박금자(20,000)	박명진(10,000)	박문숙(5,000)	박미경(10,000)	박미숙(10,000)
박미순(50,000)	박민선(10,000)	박민숙(10,000)	박배근(10,000)	박상신(10,000)	박상훈(100,000)	박서애(10,000)	박서애(10,000)
박선순(10,000)	박선하(10,000)	박선하(10,000)	박성경(5,000)	박성경(5,000)	박수연(1,000)	박수현(10,000)	박숙희(5,000)
박순영(10,000)	박시용(15,000)	박신재(10,000)	박영숙(5,000)	박영숙(5,000)	박용운(10,000)	박용원(20,000)	박은경(20,000)
박은혜(10,000)	박은혜(20,000)	박인권(20,000)	박정순(20,000)	박종호(10,000)	박진선(10,000)	박진술(30,000)	박진국(30,000)
박창권(10,000)	박채연(50,000)	박철모(10,000)	박현주(10,000)	박혜영(10,000)	박효진(5,000)	백승걸(10,000)	백창미(5,000)
백현선(800,000)	백현숙(10,000)	사순희(10,000)	삼성서초신우회(20,000)		서상숙(20,000)	서울제일침례교회(100,000)	
서현정(10,000)	서혜원(10,000)	석영란(10,000)	성기빈(40,000)	성준호(10,000)	소미라(20,000)	손영호(20,000)	손진아(10,000)
송경자(30,000)	송남(10,000)	송명주(10,000)	송민교(20,000)	송상균(30,000)	송상신(10,000)	송연자(5,000)	송재란(10,000)
송정우(30,000)	송정은(10,000)	송지영(10,000)	신건철(30,000)	신순자(100,000)	신영주(10,000)	신현숙(10,000)	신효래(10,000)
심춘화(5,000)	심태형(5,000)	심현진(5,000)	안강희(3,000)	안경모(30,000)	안승달(10,000)	안영종(10,000)	안창신(10,000)
안효철(10,000)	안훈숙(10,000)	양성숙(10,000)	양성진(20,000)	양수정(30,000)	양영희(10,000)	양운식(3,000)	양인권(20,000)
양재희(10,000)	양현아(20,000)	오수아(30,000)	오영선(5,000)	오재나(50,000)	오재원(10,000)	오진숙(5,000)	오탈환(10,000)
오혜숙(10,000)	우홍균(10,000)	원상희(5,000)	원현정(3,000)	유복희(10,000)	유부자(10,000)	유선옥(10,000)	유선옥(10,000)
유숙자(10,000)	유이레(10,000)	유정순(10,000)	유준서(5,000)	유지영(10,000)	유현숙(10,000)	유형실(30,000)	유혜원(5,000)
유화연(10,000)	윤경미(5,000)	윤금복(10,000)	윤두원(10,000)	윤미애(5,000)	윤상길(5,000)	윤상철(10,000)	윤상훈(5,000)
윤서영(10,000)	윤선옥(10,000)	윤여주(10,000)	윤영식(10,000)	윤예강(10,000)	윤예은(10,000)	윤용석(10,000)	윤정민(50,000)
윤정희(10,000)	윤종현(30,000)	윤진영(5,000)	윤진숙(10,000)	윤혜원(10,000)	윤희영(1,000)	이강선(10,000)	이강섭(15,000)
이건호(50,000)	이건호(50,000)	이경민(20,000)	이경수(10,000)	이경원(30,000)	이경진(10,000)	이경호(10,000)	이관호(20,000)
이광욱(2,000)	이금복(10,000)	이기문(2,000)	이동욱(10,000)	이명숙(10,000)	이명훈(1,000)	이민정(5,000)	이방훈(50,000)
이병기(10,000)	이보미(10,000)	이복덕(10,000)	이부길(10,000)	이상현(20,000)	이선미(20,000)	이선재(30,000)	이선호(10,000)
이선화(10,000)	이성웅(10,000)	이성자(100,000)	이수정(50,000)	이수정(10,000)	이순애(10,000)	이승연(3,000)	이승재(10,000)
이신혜(1,000)	이애리(10,000)	이애희(10,000)	이영옥(10,000)	이영희(20,000)	이운현(10,000)	이원우(3,000)	이윤재(10,000)
이은경(10,000)	이은경(10,000)	이은숙(10,000)	이은영(5,000)	이은원(30,000)	이은원(30,000)	이의화(10,000)	이장일(10,000)
이재순(5,000)	이재진(50,000)	이재희(5,000)	이정원(10,000)	이정은(10,000)	이정재(20,000)	이정화(5,000)	이중수(40,000)
이주아(20,000)	이주연(10,000)	이준옥(50,000)	이지선(10,000)	이진(10,000)	이찬의(50,000)	이창식(20,000)	이현순(50,000)
이현주(20,000)	이현주(10,000)	이현주(10,000)	이혜경(10,000)	이혜경(10,000)	이혜성(5,000)	이화숙(100,000)	이화영(5,000)
이희정(10,000)	임경주(10,000)	임경희(10,000)	임경희(20,000)	임미향(10,000)	임상귀(10,000)	임성목(10,000)	임수섭(5,000)
임수연(10,000)	임숙희(1,000)	임신희(10,000)	임영이(2,000)	임영환(20,000)	임필상(10,000)	임현선(30,000)	임현자(5,000)
임현주(20,000)	임혜순(30,000)	장리나(10,000)	장명희(10,000)	장문심(100,000)	장민홍(10,000)	장선희(10,000)	장소영(10,000)
장순녀(20,000)	장순희(5,000)	장윤정(5,000)	전남분(30,000)	전남분(30,000)	전선행(5,000)	전순임(20,000)	전애영(20,000)
전영선(10,000)	전영섭(5,000)	전영수(20,000)	전영신(100,000)	전은경(10,000)	전은영(50,000)	전재국(3,000)	전진우(5,000)
정경애(5,000)	정경환(30,000)	정광택(50,000)	정금자(10,000)	정덕규(20,000)	정두례(10,000)	정두섭(10,000)	정미소(10,000)
정민경(10,000)	정선미(10,000)	정선영(5,000)	정성분(10,000)	정애리(20,000)	정영호(30,000)	정우택(100,000)	정은희(10,000)
정종근(50,000)	정진숙(10,000)	조경희(10,000)	조광남(10,000)	조광현(10,000)	조근정(10,000)	조미숙(10,000)	조범준(10,000)
조범준(10,000)	조범준(10,000)	조범준(10,000)	조성림(10,000)	조성원(10,000)	조성혜(50,000)	조수영(10,000)	조용균(5,000)

조용균(5,000)	조용배(10,000)	조운정(100,000)	조은미(10,000)	조한열(10,000)	조한울(10,000)	조현(10,000)	조혜향(10,000)
주찬양교회(50,000)	주현숙(10,000)	지윤희(30,000)	진순애(1,000)	진희순(20,000)	채정임(10,000)	채지영(30,000)	천주리(10,000)
최광선(10,000)	최규덕(20,000)	최병수(30,000)	최봉기(10,000)	최성근(50,000)	최성제(30,000)	최세희(50,000)	최영(10,000)
최영남(10,000)	최영란(50,000)	최영숙(30,000)	최영실(5,000)	최영희(20,000)	최옥순(10,000)	최유리(30,000)	최임부(10,000)
최재선(20,000)	최주혜(10,000)	최지설(20,000)	최진명(10,000)	최춘삼(10,000)	최현미(1,000)	최홍순(10,000)	탁귀덕(10,000)
하문수(30,000)	하천기(10,000)	하희태(30,000)	한기윤(5,000)	한마리아(10,000)	한미운(30,000)	한지영(5,000)	한혜민(20,000)
한혜숙(10,000)	함수아(10,000)	함용성(5,000)	허명수(10,000)	허미(10,000)	허성진(10,000)	허인애(30,000)	현성원(100,000)
홍영숙(10,000)	홍영희(5,000)	홍유미(5,000)	홍정희(10,000)	홍정희(20,000)	홍진아(10,000)	황금해(10,000)	황보순(50,000)
황옥남(10,000)	황인순(10,000)	황중문(10,000)					

## ●● 후원물품

의류	정덕규장로	5박스
	조이어스교회	1박스
식품	푸드뱅크	고추우엉절임 10박스 떡 2박스 비빔장 2박스 빵 31박스 완두콩 2박스 젤리 18박스 빵 32박스 바나나 4박스 부활란 138개 커피믹스 2박스 요구르트 240개 굴5kg 6박스 청포도8.2kg 5박스 비타500 2박스 달걀 30kg
	(주) JFNB	
	목3동 롯데마트	
	무명	
	성남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조이어스교회	
	통일봉사단	
	권혜선	



## ●● CMS 후원 서비스 안내

안녕하세요, 소중한사람들입니다.

후원자님들의 깊은 사랑과 많은 도움의 손길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CMS 후원 서비스가 종료되어 6월부터 새로운 CMS 후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지정된 날짜에 이체됩니다.)

하나하나 정보를 입력하여 이체신청을 하는 관계로 혹시 누락되어 이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소중한사람들 사무실 02)365-9106으로 전화 주셔서 후원담당직원을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01 소중한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중림파출소 뒤, 경기여상 후문 앞).

## 소중한 사람들에 후원금을 보내시려면

- 01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자동이체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전화 02-365-9106, 팩스 02-365-9104)
- 02 웹사이트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www.ppp.or.kr](http://www.ppp.or.kr)
- 03 자유롭게 보내실 분은 후원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17-0008-6493-71 소중한사람들      우리은행 1005-902-662703 소중한사람들**
- 04 해외에서 보내시려면  
\* 우리은행 1005-902-662715 은행/지점명 WOORI BANK CHUNGNIM DONG BR SWIFT CODE : HVBKKRSEXXX 소중한사람들  
\* 체크로 보내실 경우 JUNG OK YOO 31 VIRGIL RD NORWOOD NJ 07648  
\* 은행송금 WOORI AMERICA BANK 419019146
- 05 청평 호스피스 병동 건축을 위해 천사회원이 되시려면 1구좌 (100만원)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전화 02-365-9106, 010-2210-9106)  
**국민 815601-04-128600 소중한사람들**

※ 후원금을 변경하시거나 확인하시려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 소중한사람들 후원신청서 (F. 02-365-9104 작성 후 팩스로 보내주세요.)

신청인	성명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후원내역	후원목적 (V표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목적지정 안함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사업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교회 <input type="checkbox"/> 말기암 무료병원(1구좌 100만원) <input type="checkbox"/> 해외고아 1:1 결연(4만원) <input type="checkbox"/> 미안마 <input type="checkbox"/> 아이티 <input type="checkbox"/> 멕시코 <input type="checkbox"/> 중국 <input type="checkbox"/> 북한		
	후원금액	원	후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일시후원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자동후원(CMS) <input type="checkbox"/> 직접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CMS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출금일자	매월 / <input type="checkbox"/> 6일 <input type="checkbox"/> 16일 <input type="checkbox"/> 26일	통장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통장 <input type="checkbox"/> 법인통장

한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274-3 TEL 02-365-9106 FAX 02-365-9104 [www.ppp.or.kr](http://www.ppp.or.kr)

미국 [Precious People] 41 E. Prospect Ave. Mt. Vernon, NY 10550 U.S.A.

아이티 DELMA 75, PORT-AU-PRINCE, HAITI TEL 509-3655-7153

멕시코 Lote 4 Man Zana 7 s/n nacionalistade Sanchez Tabada la Meza Ensenada, B.C cp22790 TEL 521-646-947-9250

미안마 No724/D, No(41) B.E.P.S Lane, Lower Mingalardom Road, Sintngu @TR, Insein Tounship yangon, Myanmar. TEL 951-645858, 959-73086721

중국 길림성 도문시 애심 복리원  
북한